

DJ, 국정원 과거사위에
납치사건 진상규명 촉구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9일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가 조사 중인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을 올바른 규명해 발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 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 과거사위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조사대상 7개 중 유독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해선 조사결과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며 “김 전 대통령의 기본생각은 사건의 진실규명과 사과”라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측은 지난 2월 15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비공개 회견 녹취록을 배포하고 국정원 과거사위와 한국, 일본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조사결과 발표를 촉구하는 김 전 대통령의 입장을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과거사위에 ‘당신들이 진상을 규명하지 않고 적당하게 한다면 역사를 반드시 문제를 삼을 것이다’고 말했다”며 “조사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일본 정부와 외교문제 때문이라는 이야기 도 있지만 ‘진상을 그냥 적당하게 발표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 참을 수 없다. 그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연동총 기자 tuim@kwangju.co.kr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유치 경쟁

광주 등 6곳 시범사업 신청... 정부, 2012년 말 본격 운영

정부가 추진중인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에 광주를 비롯, 인천, 대구, 대전, 창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곳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건설부는 이달중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유치신청 공고를 내고, 오는 6월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절차를 거친 뒤 오는 7월 시범노선 1곳을 선정한다.

광주시는 이달 내에 자기부상열차 타당성 용역을 발주, 용역결과 함께 6월8일까지 유치신청을 낼 예정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건설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구간과 자기부상열차를 연계시켜 건설비를 절감하고 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대구 지역은 동대구역 기점 노선, 대전은 대덕연구특구 지역, 인천은 송도-무의도 구간, 인천국제공항은 청사내 셔틀을 자기부상열차로 운행하길 바라고 있으며 창원에는 로템 등 열차 제작 업체가 모여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기부상열차는 오는 2012년 시범노선에서 상용화될 전망이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대 시속 110km급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시범노선에 대해 올 상반기까지 신청을 받은 뒤 2008년 공사에 착수하고 2011년 시험운전을 거쳐

2012년 말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총 4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시범노선은 무인운전 자기부상시스템 개발을 위해 7km의 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재희총 기자 chae@kwangju.co.kr

와이프로 내년까지 광주 등에도 확대

이동하면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프로(WiBro) 서비스 지역이 수도권에서 올해 광역시 등 전국 23개 시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된다.

와이프로와 함께 이동전화,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가 올해 상반기에 출시되고 와이프로와 다른 통신서비스의 결합 판매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중

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와이프로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와이프로 활성화를 위해 현재 서울·분당 지역 등 수도권에 한정된 와이프로 서비스 지역을 연내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23개 시로 늘린 뒤 내년에는 전국 주요 도심으로 망구축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사업자들의 투자 이행을 반기 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연립뉴스

시설

여수세계박람회 실사 준비 빈틈 없어야

2012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 실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박람회기구(BIE)가 다음달 9일부터 나흘간 실사단을 여수와 서울에 파견해 개최 준비 전반에 대한 실사를 벌인다. 여수는 2010 엑스포 유치전에서 상하이에 패배했던 전철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지 선정에 결정적 역할을 할 실사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유치위는 지난날 호평을 받은 강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실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번 실사가 경쟁상대인 모로코와 폴란드에 앞서 실시되는 만큼 가장 한국적이고 여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드러내야 한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북아 3회 연속 개최에 따른 명분 부족 등 소위 '3대 불가론'을 잠재울 수 있는 확실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대회의 실패를 거울삼아 실사준비에 완벽을 기해 여수엑스포 유치가 잘 맞아들여야 한다. 특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구축과 회민국 후보지 실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투명한 대선 정당협약' 실천이 관건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등 5개 정당 대표가 9일 '투명한 대통령선거를 위한 정당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부처 장관과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등도 서약에 서명을 하고 공동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재계, 시민단체 등이 합의문을 채택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은 공공부인과 민간부문을 가릴 것 없이 선진 한국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과제다. 우리의 투명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됐지만 선진국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부문을 다른 곳에 비해 미흡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당 대표들은 이날 협약의 통해 올해 대선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고 당의 대선 후보자들이 투명한 선거

토지 보상금 수령자 5명중 1명 부동산 투자

토지 보상금을 받은 5명중 1명은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보상금의 37.8%가 부동산에 재투자됐지만 비수도권 거주자의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된 규모는 극히 일부에 그쳤다.

건설교통부는 행복도시를 포함해 토지공사, 주택공사가 시행한 131개사업지구에서 작년 상반기에 토지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의 1년간 부동산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수령자 1만9천315명중 3천987명, 20.6%가 부동산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거래 금액은 2조5천170억원으로 전체 보상금(6조6천508억원)의 37.8%였다. 수령자의 가족(5만9천544명)중 부동산을 구입한 인원은 2천287명(3.8%)이며 금액은 7천355억원(11.0%)이었다.

연립뉴스

신문윤리위원회 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이사장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김진영 광주일보 사장과 신원호 경상일보 사장, 변용식 조선일보 편집인, 김수길 중앙일보 편집인, 최종식 경기일보 사회부 차장을 이사로 선임했다.

윤리위원회는 또 김종렬 대전일보 사장을 감사로, 유승산 전 서울신문 사장을 독자반도체위원으로 위촉했다.

재희총 기자 chae@kwangju.co.kr



9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07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투명 대통령 선거를 위한 협약서에 서명한 5당 대표들이 서명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장상 민주당 대표, 신국환 국민총심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대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각계 대표 150명 ‘투명한 대선 서약’ 서명
노동총연맹 “투명성 10년안에 최고 수준될 것”

정당 대표들이 투명한 대선을 위한 정당 협약을 체결하고 재계 인사를 포함한 사회 각계대표들이 '투명한 대선을 위한 서약'에 서명했다.

9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 '2007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장상 민주당 대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심대평 국민총심당 대표 등 5당 대표들은 '투명한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당 협약'을 체결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정당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이 같은 협약을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협약은 ▲ 예비후보자 등록 · 심사에서부터 경선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 적합한 절차에 따라 정치자금금 모금·지출하며 과정과 내용을 삼시 공개하고 ▲ 지역주의, 금권, 흑색선전, 색깔공세를 지양하고 ▲ 투명 선거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협력하고 ▲ 당 차원에서 (예비)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지도·감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투명성과 신뢰도는 선진한국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며 10년 안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 프로필 /

경제부총리 역임 '통상 전문가'

한덕수 총리 지명자

서울대 상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 행정고시 8회로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통상산업부 차관을 거쳐 국민의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에 취임한 통상전문가라고도 꼽힌다.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정책들을 내놴. 특히 한미FTA 협상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경제와 개방기조를 통해 내일 있는 성장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 강하다. 영어 실력 또한 뛰어나다. ▲전북 전주(58) ▲경기도,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박사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특허청장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부장관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위원장

자타 공인 대통령 최측근 민정수석 지내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자타가 공인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지난해 5월 민정수석 자리를 떠난 지 10개월만에 비서실의 수장으로 복귀했다.

경남고교 나와 4년 장학생으로 경희대에 입학한 그는 70년대 유신반대의 선봉에 섰던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80년 북학회지만 북학협회의 활동으로 문제가 돼 취업 위기로 구급되는 등 투옥을 되풀이했다.

이후 사시에 합격한 그는 80년대 초 노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 사무실을 열고, 부산-경남지역의 시국·노동사건 변론을 도맡아하며 하면서 취업자에서 동지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수염과 스무버디아이빙 실력이 수준급이다. 음악과 미술 등 예술 분야에도 조예가 깊다. ▲경남 거제(54) ▲경남도 ▲경희대 법대 ▲사법고시 22회 ▲노무현 대선후보 부산선대위원장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정부특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略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業	노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경 치 부 2200-616	여론대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디 제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시 열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빛日만평 - 김중두

그렇가 생각중...

“참여정부 인수위 참여 않은 것 후회”

천정배 의원 “인수위 구성부터 잘못”

민생정치모임의 천정배 의원이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정치인과 당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참여정부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광주지역 국회 출입 기자들과 만나 “정권 인수위에 386 인사 등이 대거 포진함에 기여한 정치인과 당이 철저하게 배제되었다”며 “당시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인수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권력 운영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인수위에 참여, 참여정부의 정책과 노선을 만들어 내었어야 했다”고 털어놓

연동총 기자 tuim@kwangju.co.kr